

신앙 성장 시리즈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What I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한국 오늘의 양식사

##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	4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요? .....	9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11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	13
종교적이 되면 도움이 될까요? .....	15
하나님과 맞는 개인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	17
영적인 관계 .....	19
예수님 중심의 관계 .....	25
지배하는 관계 .....	31
서로 반응하는 관계 .....	37
성장하는 관계 .....	43
나누는 관계 .....	51
당신은 가까이 있습니까...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	56

##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가 가능한가?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조용히 앉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영원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늘 던지곤 한다. 그러나 강력한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하고 혼자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을만한 대답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나?’ 늘 궁금하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알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인생의 가장 심각한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수천 년 동안에도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

시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지난 20세기 동안 사람들은 체험해 왔다.

이번 작은 책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읽어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어 삶의 풍요함을 누린 것처럼, 이 책자의 독자들도 같은 개인적 관계를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한국오늘의양식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2003년 5월

김 상 복 목사

##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내면의 통로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도 하고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도 할까요?

이 책이 이 주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기본적인면서도 심오한 이 주제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

##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요?

---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자동차 범퍼에 붙은 낡은 스티커에 여러 개의 스마일 마크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최신 모델 캐딜락 운전자는 교통 체증 속에서 서행하는 도요타 뒤에 막혀 저주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게다가 열광적인 종교적인 글을 보고 그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캐딜락 운전자에게는 그 스티커가 재미있지도 않았고 장난스럽다거나 정직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 하나님을 만남
- 하나님을 알기
- 하나님 음성 듣기
- 하나님과 대화하기
- 하나님께 인도되기

대형차 운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그도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 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아내의 종교적인 지식과 판

계없이 그는 사업상 어려운 거래를 해야 할 때나 골프 코스에서 공을 형편없이 쳤을 때 특별히 잘 봐달라고 하늘을 향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절대자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의심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남의 평판을 업고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

##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바로 이 단어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인 관계’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그 개념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당신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결코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언젠가는 천국 문에서 그들을 되돌려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생한 악몽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이 언젠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 23).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음에 올 하늘나라를 위한 기본 목적이며 특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이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소개됨으로 시작됩니다 (요 5:24).

---

##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

어느 날 아내가 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부탁은 간단한 것이었지만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누가 사무실에서 나를 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토론이 되어 또 다른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직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급하고 당황해서 전화기로 달려가면서 내가 저쪽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참을성 있게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나쳐 보낼 수는 없는 분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의

식적으로 작성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일에 둘러싸이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백성에게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마음이 상한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의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렘 2:31, 32).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

## 종교적이 되면 도움이 될까요?

---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죄를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며 자원하여 봉사하며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일이란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했을 때 (렘 2:32),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종교적인 일을 그만 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홀어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우리도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교회안에 숨거나 심지어는 성경의 책갈피에 숨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양심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내용을 끄집어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갑니다.

그런 종교는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헌물을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 멀리 놓아둔 채 입술만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마 15:8,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

##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친구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아주 비슷한 성격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호 인식 - 서로 상대방을 잘 아는 사이
- 상호 개방 - 서로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
- 상호 관심 - 서로 관심사를 나누는 사이
- 상호 존경 -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

개인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결단에서 결단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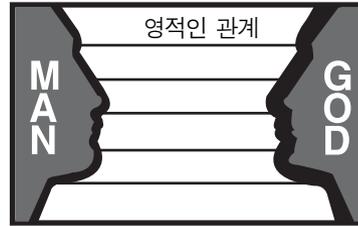
예를 들면, 내가 텍사스 주지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장관이 나를 사람들 속에서 불러낼 수 없다면, 내가 그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 또는 우리가 한번도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결심을 서로 나누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관계란 어떤 사람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선언하는 어느 무리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 7:23).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종이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집으로 초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자세히 연구해봅시다.

## 영적인 관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육체적으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경우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개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 6:1-8). 친구약에 그런 기적과 인생이 바뀌는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자유롭게 나타내 보이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상적이거나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서 개인적인 만남으로 가는 길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먼저 마음과 가슴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심을 믿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얼굴을 마주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느끼지만 신체적인 접촉이나 감동이 용솨음치거나 진동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밝은 빛과 광채 또는 인생을 바꾸는 꿈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가슴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호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두루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 감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행 17:26-28; 벰전 1:8, 9).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알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가슴속에 진리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요 7:17; 엠

1:17, 18).

---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최소한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라도 해주시기를 바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만 듣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침묵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책인 성경의 한 장을 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 의지, 계획, 가치관, 경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초대하심을 성경책 속에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히

3:7, 8) 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의 각장에서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책임을 수반하는 표현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문을 닫는다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간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특정 장소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 4:8)라고 말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라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제일 높은 언덕으로 가라거나 조용한 성전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4:10). 그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을 믿을 근거를 우리에게 주

었습니다.

시인이며 왕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다윗은 어찌서 이 말이 진실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피할 수도 없게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음 깊이 겸손했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 139:1-6),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7, 8, 11, 12, 18).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정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를 아는 지식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영원, 무한, 전능, 전지, 편재 같은 단어들의 뜻을 겨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 14:9)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관계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입니다.

## 예수님 중심의 관계



중재자는 가족관계나 노동문제, 법률논쟁 등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균형이 깨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완고함이 도사리고 있을 때 중재자는 균형을 맞추고 해결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중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사이의 투쟁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보다 더 중재자가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이 너무 넓고 깊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중재자 없이는 우리 사이에 놓인 대화 단절과 사이가 벌어진 애정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점으로는 도망간 아들과 딸이 절망적으로 법에 휘말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와 비슷합니다. 부모가 팔을 벌려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만족되어야 하고 정의는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진 빛은 갠아야 하고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재자와 평

화주의자로 오신 것은 훨씬 더 복잡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딤펴전 2:5).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단지 말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의 중재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를 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 14:6). 더 나아가서 그의 사랑의 영이 강요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바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을 없앨 수 없습니다 (고전 1:13; 갈 3:13).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보잘 것 없을 것입니다.”**

---

이런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과 애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음으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빛을 없애주신 그 사실은 그에 대해 끝없는 사랑의 빛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도와 희망을 주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합

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며 우리의 개인적 중재자로 행동하며 진실로 우리가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는 어떤 종교나 신앙체제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도록 인도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피스 토마스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전통, 영감있는 사고방식체제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도덕적 요인, 기독교 사랑이란 황금 규칙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는 중재자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깊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토마스**

---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9에서 그는 그가 사상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 우리가 봉사하는 그리스도 (v. 1)
- 기독교인을 구별해 떼어놓는 그리스도 (v. 2)
- 그 이름을 따라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v. 2)
-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v. 2)
- 은혜와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 (v.3)
-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리스도 (v. 4)
- 모든 방면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는 그리스도 (v. 5)
- 경험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 (v. 6)
-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는 그리스도 (v. 7)
-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그리스도 (v. 8)
- 그의 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v. 8)
-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 (v. 9)

바울의 주제는 새로운 사상체계나 윤리나 가르침이나 교회조직 형태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울이 알게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 그 분입니다 (딤후 2:5). 그는 바울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전 15:3), 그의 영을 통하여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산 사람들(갈 2:20)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 분입니다 (빌 1:21).

---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은 기록함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히 여긴 것은 기록함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기록함의 완성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는 살아 있는 사람과 부활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든지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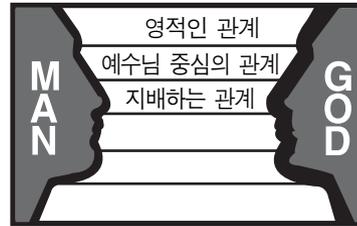
- 뒤를 돌아보십시오 - 그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골 1:16).
- 앞을 바라보십시오 - 그는 우리의 심판관입니다 (고후 5:10).
- 위를 쳐다보십시오 - 그는 구주이며 주님입니다 (빌 2:5-10).
- 아래로 내려다보십시오 - 그는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골 1:17).

-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 그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마 23:8).
- 왼쪽으로 보십시오 - 그는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요일 2:1).
- 내면을 보십시오 - 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갈 2:20).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며 생명과 도움의 영원한 원천이 되는 이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살아 계신 말씀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인격을 계시하고 정의하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주님이며 생명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 임재하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막 16:19, 20).

## 지배하는 관계



어떤 남편도 그의 아내의 눈에 “여러 남자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만족한다면 남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여자중의 하나”로 만족한다면 아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결혼관계의 친밀도는 서로 헌신하는 감정으로 깊어지는데 서로 헌신하는 마음은 모든 결혼한 부부에게 다른 여러 부수적인 행복까지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이유를 위하여 인간의 인격을 만드신 분도 역시 “신들 중의 하나” (출 20:1-6)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로 오셨는데 그는 다른 신들인 라, 크리슈나, 문, 알라, 지엠, 씨비에스와 함께 선반 위에 나란히 자리잡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투하고 소유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 48:11).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운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운 것들을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나 높은 곳, 복잡한 공간, 어두운 밤, 문 앞의 시끄러운 소리, 다락방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놀라게 펄쩍 뛰어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없어도 인생은 아주 힘들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투쟁과 비상시의 경고와 도망치는 본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바로 이해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라”(잠 1:7) 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정부도 질병과 죽음, 사탄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유일한 분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는 선함과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상스러운 결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 사고, 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사느라고 그런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 28:58-68).

반면에 진실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덕적 영적 실패에 대해 경고할 때 우리가 듣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 8:13; 16:6).

주님만이 어떤 일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을 시험할지 결정합니다 (욥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어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 10:28; 계 20:10; 20:1-15). 그런 권위는 우리의 존경과 두려움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

력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강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잠 14:26). 우리도 다윗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 34:4). 다윗은 다시 이렇게 노래를 덧붙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 34:7-9).

---

**“두려움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당신은 올바른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렘 32:37-39). 우리가 자기 파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은 두려움처럼 우리가 저항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중요성은 그것을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부분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낯선 사람의 길 안내에 기꺼이 따릅니다. 우리들은 그 상황을 순종이란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 그것을 받는 방법입니다.

순종이란 진실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넘치며 지혜로운 분인가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일 2:3-6).

두려움과 의지함과 순종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속합니다. 그 지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면 빛이시며 선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 받으며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서로 반응하는 관계



길은 끊어졌고 발은 쓰리고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힘이 빠지고 응석받이로 자란 조그만 강아지의 신경 거슬리는 모욕에

지친 독일산 셰퍼드는 안전한 만큼 거리를 두고 낮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가끔씩 옆을 쳐다보며 싸구려 간이식당의 쓰레기통 옆에서 베이글 반쪽을 던져주었던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 고통스러워하면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추워서 몸이 뻗뻗하게 굳고 피로에 지치고 배가 고파 친구가 그리웠던 그 개는 낮선 사람의 모든 동작을 주시하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표시를 한번 더 해주기를 기다리며 가장 작은 우정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느껴본 적이 있는 외로움을 기억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사람이 웃으며 당신 쪽으로 걸어오기를 간절하게 바랐지만 그런 초대는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는 도시 중앙 공원의 동상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감정은

창조주가 낯선 사람처럼 우리를 오랫동안 밖에 세워둔 뒤에야 그의 눈이 우리의 눈과 마주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사랑했고 영원 전부터 그의 백성과 함께 우리를 선택했고 (엡 1:3-6), 그는 우리와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나쁘게 되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을 그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사랑이 없고 따듯함이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 기뻐합니다 (히 11:5).
-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창 6:6; 엡 4:30-32).
- 격동하고 시험을 받습니다 (시 78:40, 41).
- 짐을 지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 43:24)

• 투기하며 동요하고 분노합니다 (겔 16:42, 43)

특히 에베소서 4장 30-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고통으로 상처를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는 아버지 같은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50억이 넘는 세계의 인구 중 단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에게는 제한

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에 한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도록 사람에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과 마음속에서 우리나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10:29-31).

만약 그의 제자들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면 그 제자들은 누구에게 더 귀한 존재일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허락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께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며 우리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는 슬픔을 느낍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찌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약 4:7-10).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특징인 서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일들에 대해 스스로 감동 받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동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 가슴속의 제일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당신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당신도 증오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당신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하기를 원할 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

이 점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장하는 관계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갓난아기가 그의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비록 이것이 다른 일과 모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신생아와 엄마 아빠 사이의 인간적 관계는 아주 강합니다. 아기는 부모와 살과 뼈를 나눈 같은 것을 공유하고 태어난 그들의 아기입니다. 아기가 실제로는 자기의 주변 환경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지금 다루는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아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기가 부모를 아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미약하게 아는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영적 생활이 초기단계에 있을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몸소 그들을 부른 하나님에 대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려하느냐 (갈 4:6-9).*

이 구절은 우리가 제안하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 7:21-23).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각 사람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나의 자녀다. 내가 그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6-9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의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발전적인 성장 과정과 변화를 암시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미성숙 상태는 그들이 잘못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경고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긴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곧 바로 엄마의 음성과 손길을 알게 된다 해도 그 관계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고 그의 부모를 깊이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자신이 부모가 될 때까지는 성숙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 후에야 그는 부모의 생각과 감정의 일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에게도 똑 같은 과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랜 과정에 걸쳐 발전적으로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계획.**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균형감각도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현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체되고 빈약하게 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

게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말씀은 우리가 하루밤 사이에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맞보았으면 그리하라” (벧전 2:2,3).

야고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

**“어른처럼 옷 입고 행동하는 아이보다 더 못한 단 한 가지 일은 어른이 아이처럼 옷 입고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먹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기와 시련과 인생의 고통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주도록 허락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데 만족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당신과 주님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은 영적 생활의 특성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가면 항상 더 많은 지식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당신의 마음이 커지고 당신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당신의 관계도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 노력하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본성상 투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적수인 마귀는 당신의 노력이 무력하게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영적인 혼수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엡 6:10-13).

비록 하나님과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관계의 특성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변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은 따뜻해졌거나 차가워졌을 겁니다. 당신의 성격이 깊어졌거나 경박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대화는 더 친밀해졌거나 교제 회수가 줄어들었거나 교제가 무의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이것에 대하여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당신의 관계는 변할 것입니다. 좋은 쪽 일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변합니다.”**

---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맺음에서 돌아서서 비인격적인 율법과 종교 의식과 다시 관계를 맺었습니다 (갈 3:1-3; 4:9).

**불완전함을 허용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불완전한 관계에 대해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9, 10, 12, 13).*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을 흐린 유리를 통하여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의 속히 오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바로 그 부족한 가족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성장을 강화할 때 우리의 완전주의를 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천국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원 안에서 완전할 것을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잃기 전에 짧은 몇 년 동안 이름을 날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적인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성공, 좋은 건강, 장수를 얻는 열쇠가 아닙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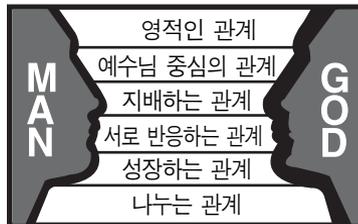
다. 그것은 내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 5:22, 23). 그것은 궁극적인 관계,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선교, 궁극적인 안전,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지금은 우리가 보거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에게 말한 것이 아직도 진실이라는 것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간청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한 반면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 나중까지 연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더 즐겨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 나누는 관계



우리는 모두 한번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 갑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결정이며 선택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위해 결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요일 4:7-11).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나는 역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 - 내 가족, 친구, 이웃, 동업자, 지인,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과 마주 대면

해야 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상호의존하며 사랑의 관계로 순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여 줍니다.”**

---

나는 외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장시키려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가슴 속으로, 그의 희생적인 사랑 속으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 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의존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관계는 많은 수평적 관계를 동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각 자녀를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그렸습니다. 각 부분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눈, 귀, 입, 그리고 발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 확

실하게 임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각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구별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 온 몸은 그 이익을 받습니다 (고전 12, 롬 12).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로 연합하여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입은 눈이 필요하고 눈이 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점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영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곧 그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

**“입이 눈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눈은 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21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권고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5:22).
-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으로 자신의 관심을 아내를 위하여 포기해야 합니다 (5:25-28).
- 자녀들은 주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6:1).
- 종들은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6:5, 6).
- 상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보살피야 합니다 (6:9).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엡 3:14-21) 우리가 사랑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의와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면 우리는 에베소서 3:14-19에서 바울이 했던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 당신은 가까이 있습니까 ...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들에게서 그 실례를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단에서도 아마도 가장 신뢰를 받았을 (돈을 관리했던)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온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계신 정원으로 인도할 정도로 예수님의 습관을 제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춤을 할 정도로 그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이며 주님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관리했던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한 그리스도 중심의 개인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지 못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나사렛에서 오신 목수 선생님과 악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우리의 모든 일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예 혹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겠습니까? (요 1:12).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확신합니까? (행 13:38, 39). 당신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구주이며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적인 중보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롬 10:9-13). 이 관계는 영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이며 지배적인 관계이며 서로 반응하는 관계이며 성장하는 관계이며 서로 나누는 관계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 한국 오늘의 양식사

###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1) 780-9565~7

F A X : (031)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odb.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816

### ■ 현금 안내

「오늘의 양식」은 독자들의 현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권당 450원 이상을 현금하시면 제작비에 사용되며 문서선교사역이 확장됩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국민 : 097-01-0199-703      우체국 : 012773-01-000710

농협 : 001-01-214911      제 일 : 107-10-109840

외환 : 026-13-33750-7      조 흥 : 308-01-137748

우리 : 132-05-108980      하 나 : 273-810047-19305

###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신표근 위원장/정영원 번역/강희숙

신앙 성장 시리즈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인 쇄 / 2003. 5. 25.

발 행 / 2003. 6. 1.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1)780-9565~7